

『고전소설의 기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태학사, 2001)

박 일 용*

1900년대 이후 약 100여 년에 걸쳐 근대적 연구 방법에 의한 국문학 연구가 진행된 지금, 고전 소설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표제 항목을 나열하여 서지 사항을 정리한 1000쪽 가까운 문헌 정보 사전이 나올 정도로 방대한 업적이 축적되었다.¹⁾ 그리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축적되어, 이제 고소설사의 개괄적인 흐름이 드러났으며, 또한 고소설의 구조와 미학적 특징이 웬만큼은 밝혀졌다. 그러나, 1939년에 김태준의 『증보조선소설사』²⁾가 나오고, 50년대에 이를 보정한 몇몇 소설사가 나온 뒤 지금까지도 만족스러운 만한 소설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고소설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가운데서도 현금의 고전 소설 연구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고전 소설사 연구가 소수의 특정 작품에 대해 집중되어 왔으며, 그것도 소수의 특정 이본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에서 고전 소설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연구 대상의 확장을 통해 소설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다 많은 이본들에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심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고전소설 자

* 홍익대학교 교수, 국문학

1) 조희웅편, 『고소설문헌정보』, 집문당, (2000).

2)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료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의 수집 정리가 고전 소설 연구에 얼마나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그간의 연구사의 몇몇 계기를 회고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정병욱 교수가 낙선재본 장편소설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들의 목록을 정리 소개 한 뒤, 이어 장서각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인과 활자화 그리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정리 작업을 한 결과, 조선시대 소설사의 가장 굵은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장편소설 연구가 본격화되어 소설사가 다시 씌어진 사실, 70년대 김동욱 교수가 판각본 소설을 수집 정리하여 영인본으로 간행을 한 뒤 영웅소설 등 방각본 소설의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된 사실, 김기동, 우혜제, 박순호, 김동욱 교수 등에 의해 활자본, 필자본 등의 고소설 자료가 영인된 후 고전소설 연구가 획기적으로 진전된 것 등은, 고전소설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전소설 자료들은 개인 소장자들과 도서관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흩어져 있는 고전 소설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 해석하여 연구자들에게 심층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택 교수는 고전 소설 자료 수집과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하버드대 연경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고전소설 이본 40여종을 수집 복사하여 영인을 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97년과 1998년의 2개년에 걸쳐 이상택, 박희병, 임치균, 송성욱 교수의 네 연구자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한 뒤 『고전소설의 기초연구』를 출간함으로써, 하버드대 소장 고전소설 이본들의 기본적인 성격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들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 현금의 고전소설사 연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고전소설연구에서 공동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편제는 하버드대 소장본 고전소설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 총론,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이본들에 대한 연구를 한 1부, 그리고 가정소설과 송사소설 그리고 기타 소설들에 대한 이본 연구를 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택 교수가 수행한 총론에서는 하버드대 도서관 소장 고전소설 이본 40여 종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 사항이 소개되고, 그 가운데 휘귀본인 <金允傳>, <閔時榮傳>, <宋婦人傳>, <劉生傳>, <玉蘭奇緣>, <昌蘭好緣>, <花門孝行錄>, <華山重逢記> 등의 이본적 의미, 그리고 노존본 <九雲夢>, 『고열녀전』, <심국지연의> 한글필사본, <수호지> 한글필사본, <樂毅田單傳>의 존재, 그리고 소련 과학원 간행 고전소설 목록과 복사본의 존재 등이 지적되었다. 1부에는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된 <별주부전>, <별춘향전>, <심청전>, <중산망월전>, <홍보전>에 대한 박희병 교수의 연구, 영웅소설로 분류된 <목중효전>, <소대성전>, <숙향전>, <유생전>, <이대봉전>, <임경업전>, <홍무왕삼한전>에 대한 임치균 교수의 연구, 그리고 영웅소설로 분류된 <김원전>, <박씨전>, <장경전>, <조웅전>에 대한 송성욱 교수의 연구가 실려 있다. 그리고 2부에는 가정소설과 기타로 분류된 <김윤전>, <송부인전>, <화산중봉기>, <창란호연연작>에 대한 이상택 교수의 연구, <금산사창업연>, <이진사전>, <화진전>에 대한 임치균 교수의 연구, 그리고 <민시영전>, <박씨전>, <월봉기>, <윤지경전>, <정두경전>, <정을선전>, <진대방전>, <화문효행록>에 대한 송성욱 교수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었다. 판소리계 소설은 주로 박희병 교수가, 영웅소설은 임치균 교수와 송성욱 교수가, 그리고 가정 가문소설은 이상택 교수와 송성욱 교수가 맡았으며 기타는 임치균 교수와 송성욱 교수가 담당하여 그 간 각각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유형에 속하는 작품을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하버드대 고전소설 이본들의 상당수는 작품 말미의 필사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에 걸쳐 부산과 전라남도 남평에 거주하였던 橋本蘇洲라는 일본인에 의해 필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이들 소설을 필사한 이유는 임치균 교수가 지적한 바처럼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그것들이 ‘朝鮮舊館 日本書堂’ 등에서 필사된 것으로 보아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소설을 필사하여 읽다가 우리의 고전소설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고전소설을 즐기게 된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버드대 소장본들의 이러한 필사기 내용은 17세기말부터 일본인들이 조선어 학습을 위해 <숙향전>을 필사하여 숙독하였던 사실, 그리고

1890년대 말에 <입경업전> 등의 활자본 소설을 출판한 사실 등과 아울러 우리의 소설이 일본인들에게까지 전파 향유되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이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웅소설과 가정소설, 그리고 기타 소설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검토하고 작품의 경계를 소개한 후, 작품을 분석하여 작품의 성격을 이야기한 뒤 결론을 맺음으로써 대체로 개별적인 작품론적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반면, 판소리계 소설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먼저 작품의 서지를 소개한 후, 하버드대 소장 이본들의 주요 장면들을 여타 이본의 주요한 이본들의 장면과 비교하여 장면의 출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본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언뜻 보기에 한 책에 수록된 연구 내용의 체제가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글들이 모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문제는 판소리계 소설과 여타 소설들의 이본 특징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애초 판소리계 소설들은 판소리 연행을 바탕으로 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이본간에 더늠형 사설, 또는 삽입가요 등의 출입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의 이본 연구는 일찍이 조운계, 김동욱 등의 연구에서부터 이처럼 단락의 비교를 통한 이본의 계열을 확정 짓는 방법이 정착되었다. 이 책에서 행한 판소리계 소설 연구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판소리계 소설의 이본 비교 방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반면 여타의 고전소설 이본들에서는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들처럼 이본간의 단락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단락을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거시적인 차원의 서사적 구조의 변이 양상, 또는 미시적인 표현상의 변이 및 문체의 변이 양상, 또는 유일본 또는 희귀본의 경우 동일 유형의 작품들과 대상 작품의 관계 비교 등을 통한 작품의 성격 해명 등의 방법 등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책에 수록된 수많은 이본들에 대한 여러 연구의 내용을 모두 소개할 겨를은 없고,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하버드대 소장 이본의 중요성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된 성과 몇몇을 소개하여 이 책이 이룬 성과의 일단을 소개하기로 한다.

판소리계 소설 이본 가운데 이본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산망월전>이라 할 수 있다. <중산망월전>은 <토끼전> 이본 가운데 사설의 삽화와

장면의 확장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이본군으로서 가람본 <별토가> 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이본이다. 박희병 교수가 행한 <중산망월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 <중산망월전>을 동일 계열로 분류되는 김동욱본 <토끼전>, 가람본 <별토가>와의 단락 비교를 통해 같은 계열 내에서 이 이본이 어떠한 특징을 드러내는가를 밝혔다. 분석 결과 여타 이본에 비해 이 이본에서는, 출륙 직전의 어전 회의, 출륙 후 호랑이와 자라 사이, 그리고 수궁에 들어 온 후 토끼와 자라 사이의 갈등 등이 약화되어 나타나며, 여타의 이본에 비해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한편, 인물의 감정 묘사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삽입가요의 생략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 내었다. 이 논문에서 밝혀낸 <중산망월전>의 이러한 특징은 논문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람본 <별토가>가 판소리의 연행과 보다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반면 <중산망월전>은 판소리 사설에 바탕을 두면서도 독서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판소리 연행과의 근접성 정도에 따라 판소리계 소설의 사실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토끼전 이본군의 연변 양상을 밝히는 데 <중산망월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본임을 뜻하는 것이다.

영웅소설 유형 가운데 가장 주목을 할 만한 것은 임치균 교수의 <유생전>에 대한 논의이다. <유생전>은 유일본일 뿐 아니라, 한글본 <유문성전>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이본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유생전>에 등장하는 꿈의 내용과 이에 대응되는 서사적 구성 내용을 비교하여 <유생전>의 이본사적 위치를 고증하였다. 즉, 꿈에 등장하는 작품 말미의 공업 성취 내용이 <유생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문성전>에는 등장하는 것을 들어 <유생전>에서 <유문성전>이 파생되었다는 선행 연구들의 가설을 수정하여 <유문성전>의 축약으로 <유생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증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고전소설 연구에서 이본 내용의 섬세한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심화시킨 모범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민시영잔>은 국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으로서 기존의 소설 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지닌 이본이다. 송성욱 교수가 행한 이 논의에서는 <민시영전>이 <소대성전>과 같은 영웅소설, <춘향전> 유형, 그리고 <마보온달> 유형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서 모방 작품의 창작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민시영전>이 비록 후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성으로 보아서 소박한 모습을 지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창작이 필자의 주장대로 모작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역으로 하층민의 삶과 소망이 소박한 형태로 반영된 이러한 <민시영전>의 모습에서 영웅소설 유형의 형성 과정의 또 다른 경로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상택 교수가 수행한 <창란호연록연작>에 대한 연구는 이본 연구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창란호연>의 하버드대 소장본이 이본으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서지 사항의 측면에서 밝힌 다음, 하버드대본과 국도본을 비교하여 두 이본의 표기법, 표현 언어와 기법, 사건 전개 양상 등의 언어 조건을 밝힌 뒤, 서사진행 과정에서의 변개 양상, 내용의 축약과 누락, 결말구조의 변이 등을 조사하여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의 연작인 <옥란기연>의 이본적 특징을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고전 소설의 이본 대비가 단순히 자구나 어휘, 서지 사항의 비교 연구에서 나아가 심층적인 미학적 연구까지를 수행함으로써 고소설 필사자가 제2의 작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대표적인 이본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전소설의 기초 연구』는 하버드대 소장본 고전소설의 이본적 성격을 구명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는 물론이고, 고전소설 이본 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미덕을 지닌 연구 성과라 생각된다.